

# 『천상의 책』에 대한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의 의견

## I. 서론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신앙교리위원회(이하, 신교위)는 하느님의 종으로 선포되고 시복 심사 중인 루이사 피카레타(Luisa Piccarreta, 1865-1947)의 『천상의 책』(한국어본 1~20권)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모았다.

루이사 피카레타가 살았던 당시 이탈리아의 신심 상황과 신비 체험의 정황을 충분히 고려할 때, 『천상의 책』에는 신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성경이나 교회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번역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 등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성경과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거나 심지어 반대되는 교의적, 영성적 오류를 다수 포함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사적 계시가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한국 교회의 현 상황에서 『천상의 책』은 신자들에게 그릇된 신심을 퍼뜨리고 교회 내 혼란과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책 전반에 대한 신교위의 평가를 담은 ‘개요’와 함께 『천상의 책』에 나타난 심각한 오류들을 일별하면서 간략한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아래, 괄호 안의 숫자는 『천상의 책』의 권, 장, 절을 의미).

### 개요

『천상의 책』은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일어난 ‘사적 계시’<sup>1)</sup>를 근거로 한 일종의 종말과 예언의 책이다. 그 사적 계시는 피카레타의 신비 체험, 환시,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피카레타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주로 담고 있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피앗(fiat)’은 성경에(마리아의 Fiat voluntas tua!) 근거를 두고 있지만, 본서에서는 특별히 피카레타와 함께 개시된 새 시대의 구원 사업인 ‘피앗’ 사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느님의 뜻, ‘피앗’을 따름이란 궁극적으로는 피카레타를 통해 개시될 새로운 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피앗’ 사업을 통해 피카레타가 구원 역사에서 예수님과 성모님에 버금가는, 심지어 그분들을 능가하는 특별한 위치로 고양되고 있다. 피카레타는 단순히 구원의 협력자나 하느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느님의 뜻에서부터 ‘미리’ 준비된 사람, ‘예정된 자’, 구세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파견된 자, 구원 사업의 ‘도구’, 하느님 뜻의 ‘맏딸’, ‘새 시대’를 여는 존재 등으로 묘사되며, 또한 그의 사명도 하느님이 펼치시는 인류 전체의 구원 사업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성모 마리아와 같이 구원 사업의 ‘도구’이지만, 새로운 구원 사업을 이 시대에 펼치기 위한 ‘특권적 도구’로 선택된 사람이다.

따라서 피카레타에게 내린 ‘사적 계시’의 근본적 특징은 구원 역사 안에서 ‘피앗’ 사업의 근원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주장은 그리스도 신앙에 있어 매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된 구원 업적을 퇴색시킬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을 ‘피앗’ 사업에

1) 본서에서는 ‘사적 계시’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예수님으로부터 피카레타에게 행해진 사적인 ‘계시들’을 전달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이는 다음의 인용문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 “내 뜻은 또한 지고한 피앗에 대한 지식이 길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분발시키고 부르며 재촉하여 내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를 ... 그들이 내 친자녀들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내 지고한 뜻에 대한 이 계시들이 알려지는 일에 매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20.59.20-21; 20.62.12).

종속시키기 때문이다. 새 시대의 구원 사업인 ‘셋째 피앗’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피카레타의 신원과 사명을 격상하다 보니 예수님의 구원을 경시 내지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천상의 책』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보다 피카레타 개인의 위상과 역할을 부각하는 데 중점을 두며, 피카레타를 예수님의 구원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묘사하기에,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된 구원 경륜을 폄하하거나 미완의 것으로 만든다. 마치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이 불충분하여 피카레타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묘사한다. 대망의 ‘피앗’(루이사 피카레타)이 대망의 구원자(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한다고까지 한다.

이와 같은 피카레타의 사적 계시에 대한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된 공적 계시를 침범할 뿐 아니라 공적 계시가 지닌 유일무이하고 결정적인 특성을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 II. 『천상의 책』에 나타난 심각한 오류들

### 1. 하느님의 뜻, ‘피앗’ 문제와 구원에 대한 이해

- 예수님의 구원을 피카레타를 통한 ‘피앗’ 사업에 종속시킨다 -

#### 1.1. ‘셋째 피앗’이란 피카레타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를 의미한다.

『천상의 책』은 한 마디로 ‘피앗’ 찬양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하느님의 활동을 창조, 구원, ‘피앗’ 사업 세 단계로 구분하며, 창조와 구원을 ‘피앗’에 종속시킨다. ‘셋째 피앗’을 행할 피카레타를 중심으로 하는 ‘피앗’ 사업은 창조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루이사와 더불어, 새로운 ‘은총의 시대’를 열기 시작하셨다. ... ‘주님의 기도’가 실현될 시대이다.”(1권 서문, 18쪽)

“나는 이제 그 두 피앗을 완성하기 위해 ‘셋째 피앗’을 발하고자 하는데, 너를 통해 발하고자 한다. 이 셋째 피앗의 완성을 위해 너를 간택한 것이다.”(12.149.4)

“나는 ‘셋째 피앗’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거니와 그때에는 나의 사랑이 놀랍고도 전례 없는 방식으로 드러날 것이다”(12.151.7)

“‘창조 피앗’과 ‘구원 피앗’과 함께 엮을 수 있을 만큼 많은 ‘피앗’을 누가 만들어 낼 것인가? ... 이 ‘피앗’은 돌인 채 남아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 ‘셋째 피앗’을 바란다. 셋으로 있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셋째 피앗’을 행할 사람이 바로 너[루이사]다.”(16.36.3.6)

#### 1.2. 피카레타의 ‘피앗’으로 구원 역사를 새로 쓰고자 한다.

‘피앗’이 구원보다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피앗’ 사업이 예수님의 구원 사업보다 우위를 차지한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 되고,<sup>2)</sup> 예수님의 모든 활동이 ‘피앗’에 종속되어 버린다.

2) “‘인간을 구원하고 하느님께 완전한 영광을 드리는 이 일은 구약의 백성 안에서 하느님의 위업으로 준비되었으며,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특히 당신의 복된 수난과 저승에서 살아나신 부활과 영광스러운 승천의 파스카 신비,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 죽음을 없애시고 부활로 생명을 되찾아 주신’ 그 신비를 통하여 성취하셨다. ... (전례 현장, 5항). 그러므로 교회는 전례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 사업을 완수하신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기념한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067항).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전 현존과 출현으로 말씀과 업적, 표징과 기적으로 특별히 당신의 돌아가심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심, 마침내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심으로 계시를 완수하시고 하느님의 증거로 확고하게 하셨으니,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어 우리를 죄와 죽음의 암흑에서 구원하시며 영원한 삶으로 부활시키시기 위한 것이다”(계시 현장 4항).

“내 뜻은 구원 사업 자체보다 더 크고 더 끝없는 것이다.”(19.7.22)

“창조사업은 피조물에 대한 우리 사업의 시작이었고, 구원 사업은 그 수단이었고, 피앗은 그 완성이 될 것이다.”(19.12.20)

“창조사업과 구원 사업은 ‘지고한 피앗’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19.12.21)

## 2. 루이사 피카레타의 신원과 사명

- 피카레타는 구원 역사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

### 2.1. 피카레타는 예수님의 구원을 대신할 도구로 미리 선택된 사람이다.

피카레타는 ‘피앗’ 시대에 예수님의 뜻을 이룰 새 시대의 사명자로, 영원하신 하느님의 뜻에서부터 미리 준비된 사람이며 새 시대를 여는 특권적 존재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 이전에 존재한 이로 묘사된다.

“나의 생애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상 생활을 계속할 수 없기에, 뽑힌 이들 안에서 생활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다. 여기에 네 [루이사의] 신분의 유용성이 있는 것이다.”(2.74.11)

“먼저 fiat voluntas Tua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야 했고, 이 목적을 이룬 연후에 나의 피로 구원 사업을 이루어야 했다. 사실 구원 사업은 이차적인 일이었다.”(16.33.8)

“[나 루이사는] 거룩하신 하느님의 뜻 안에 온전히 녹아들어 있었다.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인 나 자신을 모든 세대들에 앞세웠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도 전의 자리였다.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 그들에 앞서, 거룩하신 임금님께 보속 행위를 미리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 피조물의 모든 행위를 그분의 거룩하신 뜻으로 덮기 위함이었고, 그리하여 갈라져 나간 인간의 뜻을 하느님의 뜻과 묶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16.39.1-2)

“딸아 너[루이사]도 그렇다. 내가 너를 한 특별한 사명의 머리가 되라고 불렀고, 이는 새로운 아담을 능가하는 사명이다.”(18.13.7)

“내 뜻이 말리로 태어난 그 딸[루이사]에게 모든 것을 맡겼으므로, 곧 모든 것을 주었으므로, 그 딸 안에 모든 것의 기원이, 만물이 창조된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 우리 성삼위 하느님의 말리로 태어나기로 되어 있는 딸이 하느님의 모든 일의 일차적인 원인이었으니...”(20.9.7)

### 2.2. 피카레타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산 제물’로 봉헌될 존재다.

피카레타 자신이 겪는 고통에 그리스도의 고통과 같은 효력과 가치를 부여하며, 자신의 고통을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보속 행위로 이해한다.<sup>3)</sup>

“너는 나와 함께, 능욕되고 있는 하느님의 정의에 너 자신을 산 제물로 봉헌하여라. 계속 저질러지는 수없이 많은 죄를 보상하는 산 제물 말이다.”(1.18.16)

“나는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산 제물의 신분을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실제로 바로 그날 저녁에 갑자기 그분께로부터 오는 고통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꼬박 사흘 동안 의식이 없었다.”(1.24.17)

“내가 기꺼이 너 자신을 송두리째 희생한다면, 즉 모든 사람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너 자신을

3) “사람은 제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자신을 제물로 바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현존하는 하느님 아들의 신적 위격은 모든 사람들을 초월하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품으며,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머리가 되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은 모든 사람을 위한 제사가 된다”(『가톨릭교회 교리서』 616항).

사랑과 속죄와 보상의 산 제물을 내 팔에 맡긴다면...”(1.27.8)

“딸아, 영광스럽게 된 내 몸은 이제 고통을 받을 수 없기에, 내 수난을 계속하기 위하여 너를 쓰고 있다. 지상 생활 동안 내 몸을 써서 그렇게 했던 것과 같이, 내가 네 안에서 네 몸을 사용하여 수난을 계속함으로써 하느님의 정의 앞에 보상과 속죄의 산 제물로 너를 바치고 있는 것이다.”(2.45.3)

### 2.3. 피카레타는 예수님의 고통을 대신 받음으로써 앞으로 닥칠 진노를 막는 대속적 중개자다.

예수님은 세상에 진노와 징벌을 내려 자신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분으로 묘사되고, 피카레타만이 진노와 징벌을 면하게 하는 진정한 중개자요 대속자로 남는다.<sup>4)</sup> 예수님은 징벌을 내리기 위하여 계속 피카레타의 동의와 허락을 구하는 종속적인 분으로 묘사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세로 있을 때는 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사람들을 벌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네 팔들을 묶어 두는 것이다.”(3.4.11)

“산 제물인 너의 처지와 나를 기다리는 너의 끊임없는 기다림이 이미 나의 노여움을 가시게 하는 것이다.”(4.15.4)

“산 제물인 제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지체들이 징벌을 받지 않게 해 줄 수 없다면, ... 산 제물이라는 이 신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4.16.10)

“나[예수님]도 역시 산 제물이었지만 세상을 모든 징벌로부터 구해 낼 허락은 받지 못했다.”(4.16.11)

“내 딸아, 너는 여러 차례 하느님의 의노를 가시게 해 왔고 그 타격을 기쁘게 받았다.”(4.26.2)

## 3. 성사에 대한 이해

- 성사의 효력을 폄하하고 ‘영원한 성체’인 ‘피앗’을 모든 성사의 우위에 둔다 -

### 3.1. ‘피앗’은 성사들을 능가하고 대치하는, 탁월한 성사적 효력을 지니는 ‘영원한 성체’다.

미사 중에 영하는 ‘성사적 성체’와 ‘피앗인 영원한 성체’를 대비시킨다. 성체를 15분 동안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폄하하고 그에 비하여 ‘피앗’을 ‘영원한 성체’로 들어 높인다. ‘피앗’이 성사와 동일시되며, 피카레타가 예수님을 대신해 성체성사를 만드는 존재처럼 묘사된다.<sup>5)</sup> 성사의 사효성을 부정하는 표현들이 다수 발견된다. ‘피앗’을 사는 사람은 성사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까지 말한다.

“딸아, 나는 네가 무엇에 대해서든지 언짢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사실, 날마다 영성체를 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그렇지만 영혼과 나의 그 친밀한 일치는 얼마동안 계속되겠느냐? 고작 15분 밖에 되지 않는다.”(8.34.1)

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신적 위격의 단일성 안에서 참하느님이시며 참사람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이시다”(『가톨릭교회 교리서』 480항).

“그리스도 한 분만이 중개자요 구원의 길이시며, 당신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가톨릭교회 교리서』 846항).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1티모 2,5).

5) “교회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사들에 대하여 다른 성사로 대체하지 않았고, 대체할 수 없다. 왜냐하면 트리엔트 공의회가 가르치는 것처럼 신약의 일곱 가지 성사는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며, 교회는 ‘성사의 본질’, 곧 신적 계시의 원천적 증언에 따르면 주 그리스도 친히 성사적 표지 안에 보존하도록 설정하신 것들에 관한 어떤 권한도 갖지 않기 때문이다”(교황령 Sacramentum Ordinis, 1947.11.30.; 『덴칭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3857항).

“내가 무엇보다 관심을 쏟아야 할 일은 너의 뜻이 나의 뜻 안에 완전히 녹아들게 하는 것이다. 나의 뜻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나와서 친밀한 일치가 고작 15분이 아니라, 언제나, 언제까지나 지속되기 때문이다. 나의 뜻은 영혼과의 끊임없는 친교이다. 그러므로 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매 시간 매 순간이 항구적인 영성체가 되는 것이다.”(8.34.2)

“딸아, 너는 나의 뜻 바깥으로 절대 나가지 말아라. 이 뜻은 영혼에게 새로운 세례와 같은 능력을 지니고 있다. 아니, 세례성사 자체보다 더 위대하다. 성사들 안에는 내 은총이 부분적으로 있는 반면에 나의 뜻 안에는 은총이 전체적으로 가득히 있기 때문이다.”(9.32.2)

“성사적인 일치는 몇 분밖에 계속되지 않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나의 뜻과의 일치는 항구적인 것이니 말이다.”(9.32.4)

“내 뜻의 이 하늘들이 내게는 감실과 축성된 성체 자체보다 더욱 더 소중하고 특전적이다. 성체 안에서는 성체의 형상이 소멸됨에 따라 나의 생명도 끝나지만, 내 뜻의 이 하늘들 안에서는 내 생명이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11.8.10)

“내가 내 뜻 안에서의 삶이라는 성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 삶을 사는 이들 안에서는 나를 축성할 사제들이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교회도 감실도 성체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12.27.12)

“딸아, 성사들을 성사들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무엇이나? 성스럽기 때문에, 은총과 거룩함을 줄 수 있는 가치와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나 이 성사들은 내적 준비에 따라 작용한다. 그러므로 성사들이 자체 안에 지닌 은혜를 줄 수 없어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12.119.2)

“너에게 거듭 확인하거니와 나의 뜻은 성사다. 모든 성사들을 합친 것을 능가하지만 더욱 놀라운 방식으로 그러하다.”(12.119.8)

“이와 마찬가지로 영혼이 내 뜻 안에서 행하는 각자의 행위는 이 행위 안에서 나를 넣어 봉하는 것이고, 나는 그 영혼의 뜻 안에 봉해져 있게 된다. 그러므로 내 뜻 안에서 행해진 행위들은 영구적인 영성체이고, 이 (무형의) 빵은 성체 안에서 소멸되듯이 소멸되지 않는다. 성체 안에서는 빵이 소멸됨에 따라 나의 성사적 생명이 끝나는 것이다.”(12.120.8)

“내 뜻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성사들 자체도 그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독이 될 수 있다.”(17.1.21)

### 3.2. 성찬례를 예수님의 희생과 고통을 반복적으로 지속시키는 것으로 오해한다.

성찬례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기억하고 기념하여 성사적으로(피흘림 없이) 재현(현재화)하는 것이지 희생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sup>6)</sup>

“내가 너희를 위해 제정한 사랑의 성사 곧 성체성사 안에서 나는 삼십 삼 년 동안 지상에서 살면서 행했던 모든 일과 겪었던 모든 고통을 계속 행하며 겪고 있다.”(1.14.26)

“미사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 한 번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그 한없는 사랑으로 이 영구적인 희생제사를 통하여, 산 제물의 상태로 성체 안에 계속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1.36.4)

6)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는 (그때마다 새롭게) 거행되는 것이지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반복되는 것은 기념 예식일 뿐이다. 전례 거행 때마다 유일한 신비를 실현하시는 성령께서 임하신다”(『가톨릭교회교리서』 1104항).

“성찬례는 그리스도의 파스카를 기념하며, 그분의 몸인 교회의 전례 안에서 그분의 유일한 희생 제사를 현재화하고 성사적으로 봉헌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1362항).

“대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곧 유일한 십자가의 제사로 ‘거룩해지는 이들을 영구히 완전하게 해 주신 것이다’(히브 10.14)”(『가톨릭교회교리서』 1544항).

#### 4. 성모 마리아의 위상

- 성모님이 신격화되고, 구원 역사에서 피카레타가 성모님보다 우위를 차지한다 -

##### 4.1. 피카레타의 성모 신심은 도를 지나친다(성모의 신격화와 선재 사상).

마리아를 ‘공동 구속자’<sup>7)</sup>로 표현할 뿐 아니라 마리아에게 신성을 부여한다. 성모 마리아는 지상에서 탄생하기 전에 이미 성삼위 하느님의 단일한 신성(영원성) 안에 먼저 잉태되었다는 일종의 ‘선재 사상’을 주장한다. 성모 마리아는 ‘천상의 아기’ ‘피앗 볼룬타스 투아의 씨앗을 받은 분’ ‘신화된 분’으로 불리고 있다. 자연적인 병에서도 면제된 존재로 묘사되기도 한다.

“그 순간 내게는 우리 여왕이신 어머니께서 단 하나의 점에서만 하느님과 다른 또 한 분의 하느님처럼 보였다. 하느님께서도 당신 자신의 본성상 하느님이시지만,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서는 은총의 성취로 말미암아 신성을 지니신 것 같았으니 말이다.”(2.77.5)

“그러나 아기 여왕[성모님]이 그렇게 하고 있었을 무렵 우리[성삼위]의 뜻은 이 여왕에게 지상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여왕은 그 즉시 우리의 호뜻함과 기쁨을 뒤로하고 지상을 향해 출발하였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였겠느냐? 바로 우리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였다.”(15.3.33)

“[성모님은] 원상 그대로이며 질서 있고 신화된 상태여서, 인간 본성에 침투하는 자연적인 모든 병에서도 면제되었을 정도였다.”(16.30.13)

“나 자신 외에도 내 천상 엄마 역시 ‘천주성자의 어머니’라는 유일무이한 사명과 인류의 공동구속자가 되어야 하는 임무를 받으셨다.”(17.40.8)

“내 어머니는 나를 잉태하시자 곧바로 공동구속자의 임무를 떠맡으셨고…”(17.40.10)

“천상 엄마는 (온 존재가) 완전히 하느님의 뜻이셨고 하느님의 뜻 외에는 다른 양식이 없었으니, 바로 하느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19.8.12)

##### 4.2. 피카레타를 성모님과 같은(또는 더 높은) 자리에 위치시킨다.

구원 사업에서 마리아가 행한 역할을 고스란히 피카레타에게 돌린다. 이로써 피카레타를 마리아의 위치 내지 그 이상으로 격상한다.<sup>8)</sup>

“우리 어머니께서는 하늘에 계신다. 나는 그래서 너에게 땅에서 내 어머니가 될 소임을 준다. … 너도 내 어머니가 되어, 할 수 있는 한 나 대신 고통을 받으면서 내 모든 고통의 충실한 동반자가 되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나를 위로하려고 애써라.”(2.59.13-14)

“내 영원한 의지의 문들은 오로지 내 작은 딸[루이사]에게만 열리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모든 피조물의 선익을 위하여 이 딸의 행위들을 내 행위들과 내 엄마의 행위들과 합해 우리의 삼중적인 행위 전부를 지존하신 하느님 대전에 바치기 위함이다.”(15.10.20)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나라에 있으면서 내 엄마를 부르고 선택했던 내가 아니냐? 마찬가지로

7) ‘공동 구속자’는 성모 마리아에게 할애된 표현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루이사 피카레타의 책 『수난의 시간들』을 실행하는 사람을 ‘공동 구속자’의 위치에 놓는다. “딸아, 영혼이 이 ‘시간들’[수난의 시간들]을 실행하면 나의 생각을 취하여 자기 것으로 삼게 된다. 나의 보속과 기도와 열망과 애정을, 심지어 내 가장 내적인 기질까지도 자기의 것으로 삼게 된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사이에 우뚝 서서 나와 같은 사명을 수행한다. 공동 구속자로서, 나와 함께, ‘하느님, 당신 뜻을 이루려고 제가 왔으니, 저를 보내 주십시오(Ecce ego, mitte me).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당신께 보상하며 응답하고, 모든 사람의 선익을 위하여 당신께 간구하나다.’라고 말한다”(『천상의 책』 11.82.7-8).

8) “… 이 같은 영광의 영예는 탁월하신 동정녀께 더욱 충만하게 부합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과 인간의 화해를 위해 그분과 같이 똑같은 봉사를 이전에 했거나 앞으로 할 그 어떤 누구도 생각할 수 없다”(회칙 Fidentem piumque, 1896.09.20.; 『덴칭거』 3320-3321항).

로 나는 너를 부르고 선택하였다. ... '대망의 피앗'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 이를 얻기 위해서 너는 내 사랑하을 엄마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것들을 네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 네가 내 엄마보다 더 행복한 몫을 받은 것이다.”(19.8.27)

“대망의 구원자를 얻기 위해 내 엄마에게 가장 필요했던 점과 가장 높고 가장 본질적이었던 점은, 하느님께서 행하시듯 하느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었다. ... 너도 그렇다. '대망의 피앗'을 얻어 내고자 한다면, 하느님께서 하시듯이 하느님의 뜻을 행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19.9,18-19)

“나는 내 천상 엄마보다 너에게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19.12.16)

## 5. '하느님의 뜻'에 반대되는 인간의 뜻과 자유 의지: 정적주의(Quietism)

- 인간의 자유 의지가 부정되고 인간의 뜻이 좌악시된다 -

하느님의 뜻에만 집착하고 인간의 자유 의지와 뜻은 완전히 수동적인 것으로만 여겨, 정적주의(靜寂主義, quietism)<sup>9)</sup>에 빠질 위험이 크다.

『천상의 책』은 하느님의 뜻과 인간의 뜻을 과도하게 대립시키며, 인간의 뜻을 늘 좌악시한다. 인간의 자유 의지가 부정되고, 오로지 하느님의 뜻만 소유하면 더 이상 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인간의 뜻을 완전히 수동적인 것으로만 여긴다.<sup>10)</sup> 하느님의 뜻 또는 섭리 앞에서 인간의 의지와 뜻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네가 너 자신 안에서 가장 먼저 없애야 하는 것은 너의 뜻이다. 네 안에 있는 그것은 선을 제외한 모든 것을 탐하므로 없애야 하는 것이다. 그런즉 내 앞에 너의 뜻을 온전히 희생 제물로 바쳐야 너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될 수 있다.”(1.11.7)

“내 딸아, 인간 자신의 의지야말로 인간과 나 사이의 일치를 가로막고 내 은총에 대항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4.90.5)

“완전한 멸망의 표를 지니고 있는 것은 오로지 인간의 자아일 뿐이다. 이 자아란 것이 없다면 일체가 안전한 것이다.”(4.96.3)

“세례성사로 원죄는 없어져도 걱정과 나약은 그대로 남지만 나의 뜻 안에서는 영혼이 그 자신의 의지를 없앴으로써 걱정과 나약과 인간적인 요소를 다 없애고 덕행과 힘 및 모든 신적 자질로 살아가는 것이다.”(9.32.2)

“오직 인간의 뜻만이 모든 악의 씨를 내포하고 있다.”(12.118.6)

“홀로 내 '피앗'만이 질서인 반면, 인간의 뜻은 무질서인 까닭이다.”(15.7.17)

“그런데 지고하신 의지는 그들의 선익을 위하여, 곧 그들을 행복하고 강하고 거룩하고 신적인 존재로, 마치 천상적인 빛의 여명과 같은 존재로 변화시키는 일에 온 정성을 쏟으시는 반면, 인간적인 뜻은 그들을 나약하고 비참한 흠투성이로, 민망할 정도로 천한 정욕에 싸인 존재로 만든다.”(16.1.3)

9) 『한국가톨릭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영혼의 소극적 상태. 인간의 노력을 억제하면 하느님의 활동이 온전하게 펼쳐질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 완전하게 된다는 주장. 구체적으로는 수행 생활의 잘못된 이론과 실천을 말한다”(『한국가톨릭대사전』 10권, 한국교회사연구소, 2004, “정적주의”, 7569쪽). 정적주의에 관한 교회의 입장 참조: 1687년 8월 28일 성무성성 교령과 11월 20일 헌장 Caelestis Pastor에서 단죄된 68개 명제, 『덴칭거』 2201-2269항.

10)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시어 인간에게 자발성과 자제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위를 다스릴 수 있는 인격의 존엄성을 주셨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제 의지의 손에 내맡기고자’(집회 15,14) 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유 의지로 자신의 창조주를 찾아 그분을 따르며 자유로이 충만하고 복된 완전성에 이르도록 바라신 것이다’(사목 헌장 17항 참조)”(『가톨릭교회교리서』 1730항). “인간은 이성을 지녔으며, 이 때문에 하느님과 비슷합니다. 그는 자유롭고 자신의 행위를 자제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성 이레네오, 『이단 반박』, 4,4,3: SC 100, 424(PG 7, 983)].

“인간이 뜻은 어둠이요, 하느님의 뜻은 빛이다.”(16, 7장 제목)

“인간의 모든 선은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고, 모든 악은 인간 자신의 뜻을 행하는 데 있는 것이다.”(16.23.15)

“인간의 뜻은 영혼 안의 내 뜻의 생명을 마비시킨다.”(19.53.10)

“인간의 뜻이야말로 가련한 피조물에게 있어서 진실로 캄캄한 밤이기 때문이다.”(19.54.12)

“인간의 뜻이 하느님과의 모든 유대와 친족 관계를 파괴하고, ... 그러니 인간 자신의 뜻이 얼마나 많은 악을 초래하는지! 그것이 모든 선을 황폐하게 하고, 모든 악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19.55.18)

## 6. 기타

이 밖에도 삼위일체론, 그리스도론, 신앙론, 종말론 등에서 심각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6.1.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와 표현이 자의적, 임의적이다.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할 때 세 신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묘사한다.

“어느 날 아침, 마침내 예수님께서 내게 친절하게 알려 주신 사실이 있으니, 그것은 지상에서 맺으신 나와 의 혼인을 성부와 성령의 승인하에 모든 천상 주민들 앞에서 새로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다.”(1.43.1)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탄신 축일인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삼위의 승인을 얻으시려고 흰색과 빨간색과 녹색의 아주 값진 보석들로 장식된 반지를 꺼내시어 성부께 드렸고, 성부께서는 이 반지를 축복하신 후 당신 외아들에게 돌려주셨다. 그리하여 성령께서는 내 오른손을 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넷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셨다. 이어서 성삼위께서 한 분씩 차례로 내게 입맞추시며 특별 강복을 베풀어주셨다.”(1.47.4)

“성삼위께서는 우선 무척 귀여운 세 아기들의 모습으로, 다음에는 하나의 몸에 머리가 셋인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각각 독특한 아름다움과 완전한 매력을 지니고 계셨다.”(1.48.13)

6.2.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설명이 교의에 부합하지 않고 자의적이다. 마치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묘사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더는 인성을 통해 고통을 받을 수 없기에 피카레타를 통해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과 따로 분리되어 피카레타 안에 심어질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한다.

“나의 육화는 나무에 나무를 접붙이듯이 인성을 신성에 결합시켰다.”(5-17)

“그러므로 내가 온전히 나의 의지로 사는 영혼들을 찾아내면, 그들이 내 인성을 - 그 시간과 장소와 상황과 심지어 고통도 대신하게 된다. 나의 의지가 그들 안에 살아 있기에, 내가 내 인성을 썼던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그들을 쓰기 때문이다.”(11.72.5)

“이제 내 인성은 더 이상 고통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내 뜻을 행하는 사람 안에서 산다. 이 사람이 내 인성으로 쓰이는 것이다.”(11.96.10)

“나의 인성은 일정 기간만이 아니라 세상이 세상인 동안 고통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내 인성은 고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쓴다.”(12.22.1)

“착한 의향을 가진 영혼이 나에게 자기 안의 생명을 줄 때에는 내가 내 인성 안에서 살듯이 그 영혼 안에서 다시 살아간다.”(12.58.3)

“자기 안의 내 생명을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가 이 생명이 사라지자 버둥거리며 온 몸을 부들부들 떨게 되는데, 이는 내 신성이 십자가에 달린 내 인성에게서 힘을 거두고 죽게 했을 때,



그때의 내 인성과 거의 같은 모습이다.”(12.58.6)

“나는 내 인성 안에서 살았던 것처럼 네 안에서 살고 있다.”(12.78.9)

“그러므로 어머니의 태중에 있었을 때부터 나의 신성은 사랑 깊은 사형 집행자의 역할을 떠맡고 있었다.”(12.81.7)

“이 빛 속에 녹아들자 (내가 입었던) 예수님의 인성마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12.84.12)

“내 인성은 신성에 동화되어 있었고, 아니 인성과 신성이 하나였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였건만 나는 신성의 심연과 별리의 고통을 느꼈다.”(12.133.6)

“나는 두 인성이 필요하다. 나 자신의 인성은 구원 사업을 위해서이고, 또 하나의 인성은 아버지의 뜻이 ... 이루어지게 할 ‘피앗 볼툽타스 투아’를 위해서다. 이는 앞의 것보다 더 필요하다. 먼젓번 인성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지상에 왔지만, 두 번째 인성을 통해 와서는 인간을 창조된 목적에 이르도록 회복시키고, 인간의 뜻과 하느님의 뜻 사이에 은총의 통로를 열어,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다스리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17.3.13)

“내 작은 인성이 사랑하올 엄마의 태 안에서 ... 죽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17.26.8)

“내 인성은 내 신성으로부터 영혼 구원의 사명을, 즉 사람들을 속량해야 하는 구원자로서의 임무를 받았다.”(17.40.3)

“내 인성에는 경계 내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내 인성은 내 영원한 뜻보다 작고, ...”(19.24.5)

“아담 안에는 내가 내 인성을 넣어두지 않았다. ... 그 당시에는 내가 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줄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네[루이사] 안에는 내 인성을 넣어 두었다.”(20.16.18)

### 6.3. 예수님이 받는 고통을 미화시킨다. 피카레타의 고통 그 자체가 진노를 푸는 힘을 지니는 것으로 묘사된다. 피카레타의 고통에 예수님의 고통과 같은 효력과 가치를 부여한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서는 내게 고통, 곧 감미로운 고통에 대한 사랑을 불붙여 주셨으므로, 고통을 받지 않는 편이 더 큰 괴로움이 되었다.”(1.12.15)

“그 쓰라린 고통을 제게 부어 넣으시면 당신께서는 거기에서 풀려나실 것입니다.”(3.47.4)

“이제는 나를 좀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너 자신의 손에 의해 다시 십자가에 못박히겠느냐?”(3.64.5)

“그러자 예수님은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내 손발에 한 번 더 못을 박기 시작하셨다.”(3.64.7)

“네가 내 가시관 고통을 겪을 때면 내 고통이 없어진다. 너 자신이 그것을 겪으니까 나는 거기에서 완전히 놓여난 느낌이 드는 것이다.”(4.85.2)

“나는 또한 너의 고통을 나 자신의 고통으로 간주하기에, 같은 효력과 같은 가치를 부여한다.”(12.5.4)

### 6.4. 하느님 뜻에 대한 ‘지식’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신앙’ 내지 ‘신앙의 여정’의 중요성이 감소된다. 오직 ‘지식’과 앎, 계시만 강조할 따름이다. 이처럼 ‘지식’과 ‘계시’에 지나친 방점을 두는 태도는 영적 ‘지식’의 인식을 구원의 필연적 조건으로 여긴 ‘고대 영지주의’를 연상시킨다.

“조물 안에 포함된 모든 비밀을 그에게 알려준다. 내 뜻이 그를 하느님의 모든 선물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15.31.14)

“딸아, 어떤 사명에 부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의 신비와 중요성과 임무와 재산과 설립자 및 그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16.8.3)

“나의 뜻에 대한 지식을 맡길 사람을 택하여, ...”(17.37.8)

“내 뜻은 또한 지고한 피앗에 대한 지식이 길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분발시키고 부르

며 재촉하여 내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를, ... 그들이 내 친자녀들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내 지고한 뜻에 대한 이 계시들이 알려지는 일에 매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20.59.20-21)

6.5. 시한부 종말론의 색채를 띠고 있으며, 종말이 두려운 것으로만 그려진다.<sup>11)</sup> 인류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한다. 공포를 조장하고, 지옥 고통, 위협의 메시지가 이어진다.

“어머니, 유혈의 참사는 필요합니다.”(4.3.5)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오지 않고 고통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 세상에 징벌을 내리기를 원하기 때문이다.”(4.15.2)

“딸아, 징벌은 꼭 필요하다.”(4.60.3)

“그분께서는 ... 들고 계셨던 십자가를 사람들 위에 내던지신 것 같았고, 그 결과 징벌이 시작되고 있었다.”(4.67.3)

“제 분노의 이 타오르는 불길을 누구에게 쏟아낼 수 있겠습니까?”(4.130.6)

### III. 결론 및 사목적 제언

전반적으로 본서에서는 구원 사업에서 하느님의 절대적인 주도권이 무시되고,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된 구원의 유일성과 보편성이 아니라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주어진 사적 계시를 통한 구원 사업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느님의 뜻, 피앗’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피카레타를 신격화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피앗’ 사업에 종속시키며, 피카레타를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로 묘사한다. 성경과 성전을 통해 주어진 공적 계시보다 사적 계시에 더 중요한 위상을 부여한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의 신흥 종교 교주들이 주장하는 ‘삼시대론’과 일맥상통한다. 삼시대론은 구원의 역사에 세 시대가 있다고 주장하며, 앞의 두 시대가 이루지 못한 구원을 셋째 시대(그들은 이 셋째 시대를 ‘성령의 시대’, ‘성약 시대’ 등으로 일컫는다)에 와서 완성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의 가장 심각한 오류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 업적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것이며, 구원에서 하느님의 주도권을 배제하고 셋째 인물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것이다. 『천상의 책』에서는 피카레타를 신격화하기 위하여 - 또는 적어도 신적인 역할과 위상을 부여하기 위하여 - 그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능가하는 사명을 부과하며 창조 이전의 시간부터 이미 존재한 인물로 묘사한다.

본서의 가장 큰 문제는 피카레타에게 행해진 사적 계시를 공적 계시보다 우위에 놓으며, 전자가 후자를 보완하거나 완성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에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의 「계시현장」 4항에 따르면, 가톨릭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느님께서는 ‘마지막 때’(히브 1.2)가 차차 영원한 말씀이신 당신 아드님을 파견하시어 당신 구원의 임무를 완수토록 하셨으며, 아드님의 전 현존과 출현, 말씀과 업적, 표징과 기적,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파견을 통해 계시를 완수하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어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 “따라서 새롭고 결정

11) “하느님만이 정의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줍니다. 최후의 심판은 근본적으로 두려운 장면이 아니라 희망의 장면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희망의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 그리고 그분의 정의 안에는 은총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의와 은총은 그 올바른 내적 관계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베네딕토 16세 회칙,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 44항).

적인 계약인 그리스도의 구원 경륜은 결코 폐기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기 전에는 어떠한 새로운 공적 계시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4항). ‘사적 계시’는 그리스도교가 보존하고 전달해야 하는 신앙의 유산에 속하지는 않는다. “이런 것들[‘사적’ 계시들]은 그리스도의 결정적 계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한 시대에서 계시에 따른 삶을 더욱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가톨릭교회 교리서』 67항). 사적 계시의 권위는 공적 계시의 권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며, 사적 계시는 신앙을 돕는 역할을 할 뿐이고, 신자들을 공적 계시로 이끌어 줄 때 그 신빙성이 드러난다.

『천상의 책』은 사적 계시를 공적 계시보다 우위에 놓으며,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감도하신 것이어서 오류가 없다고 단언한다(3.27.3). 이 책에서는 공적 계시를 위한 긍정적 역할이 드러나지 않으며, 공적 계시와 일치하지 않거나 상반되는 내용이 상당수 담겨 있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예수님 말씀이나 모습은 신약 성경과 교회의 삶을 통해 전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모습과는 상이하며, 때로는 환시 체험자가 예수님을 마치 조종하거나 지시하려 하는 모습도 보인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환시 체험자의 말을 따르는 것처럼 묘사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들은 지극히 과장되고 개인적 상상의 측면이 강한 것들이다. 다분히 감상적이고 과장적이며 자극적인 서술이 주를 이루며, 내용 중에는 정통 신앙에 위배되는 내용도 있어, 오늘날 맥락에서 신자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도움이 되기보다는 혼란을 야기하고 그릇된 신심으로 이끌 위험이 매우 커 보인다.

피카레타의 구원사적 역할과 그가 받은 사적 계시에 대한 과도한 집중은 본질적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지속하고 있는 교회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남도록 할 위험이 크다. 이는 성체성사의 효력을 오해하고, 교회의 모든 성사를 하느님의 뜻 영성으로 대치시킬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을 하게 한다. 교회의 삶에 깊이 참여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돈독히 하며 신앙 안에서 자신의 인격과 공동체 의식을 성장시키기보다는, 하느님의 ‘뜻’에 대한 ‘소유’를 과도하게 부각시키면서 “하느님의 뜻, 피앗을 소유한 자만”을 강조하는 영지주의적 엘리트주의를 조장하거나 혹은 배타적 선민사상에 빠지게 할 위험이 크다. 피카레타를 추종하는 이들에게는 ‘피앗’이 성사와 모든 교회 활동을 대치하여, 하느님의 뜻을 따르면 사제도 교회도 필요 없고, 피카레타의 사적 계시 이외에 교회의 가르침은 설 자리가 없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세우신 성사, 교회 제도, 교회 공동체의 삶 등이 무의미해진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큰 타격을 입은 교회의 현 상황에서, 교회의 권위나 가르침을 무시하고 오직 ‘나’가 중심이 되어 퍼지는 이러한 개인주의적 영성은 반교회적 집단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사목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가경자의 저서를 확산시키지 않도록 하고, 하느님의 뜻 영성 모임도 중단하는 것이 교회의 선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앞서 서울대교구에서 취해진 출판 허가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